

한경직. **절기설교 모음집** (서울: 사단법인 두란노 서원 발행, 2010),

추수감사 주일 설교 참고 본문들

- 데살 5: 18 :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엡 5:20 :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골 3:15 :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빌 4:6 :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고후 9:15 :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디전 1: 12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롬 7:25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 27:35 :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욥 1:21 : "모태에서 빈 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 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 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감사를 얼마나 하는지를 보고 그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헤아려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재어보는 자와 같습니다. <sup>1</sup>

믿음이 있어야 부모에게도 감사할 줄 압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회의 은혜를 깨닫고, 사회에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국가의 은혜도 깨닫고 국가에 대해서도 충성을 다하고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로마의 유명한 작가 키케로는 일찍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최고의 덕일 뿐더러 모든 덕의 어머니가 되느니라."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히 봉사를 잘하게 됩니다. ....<sup>2</sup>

욥 1:21 에 자식 10 남매가 하루 아침에 몰살을 당했을 때 욥이 남긴 한마디를 기억하십니까?

"모태에서 빈 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 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 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sup>3</sup>

하나님께서 한번은 어떤 교회에 천사 둘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천사 둘에게 바구니를 하나씩 주어 내려보내면서, 한 천사에게 부탁하기를 "너는 그 교회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간구하는 것을 다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하고,

다른 천사에게는 "너는 그 교회에서 감사를 얼마나 하는지, 그감사하는 것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천사가 교회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한 천사는 바구니에 가득 담아서 무거워 겨우 올라오고, 다른 천사는 가뿐한 것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간구하는 바구니는 가득한데, 감사하는 바구니는 거의 이었다는 말입니다. <sup>4</sup>

<sup>1</sup> 한경직. **절기설교 모음집** (서울: 사단법인 두란노 서원 발행, 2010), 231.

<sup>2</sup> 한경직. **절기설교 모음집** (서울: 사단법인 두란노 서원 발행, 2010), 232-233.

<sup>3</sup> 한경직. **절기설교 모음집** (서울: 사단법인 두란노 서원 발행, 2010), 234.

<sup>4</sup> 한경직. **절기설교 모음집** (서울: 사단법인 두란노 서원 발행, 2010), 235.

나의 생명 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참된 신앙이 감사의 깊은 원천이 됩니다.<sup>5</sup>

## 우리는 씨 뿌리는 농부

영적 세계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농부입니다.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여름에 김을 매고, 가을에 곡식을 거둬드리는 농부입니다. 우리 인간 매일의 생존은 심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 우리의 수족으로 행하는 하나하나가 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sup>6</sup>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거둬들이 있습니다. 매일 나의 사 [사고], 언 [말], 행 [행실]을 내 성품에서 거둬들이고, 차차 내 가정에서 거둬들이고, 내 교회에서 거둬들이고, 내 사회에서 거둬들이고, 내가 사업하는 데서도 거둬들이고, 국민으로서 국가에서도 거둬들이고.

매일 우리의 사.언.행이 씨가 되어서 씨뿌림이 되어서 이것을 오늘에 심는 대로 미래에 거둬들이고, 젊어서 심은 것을 늙어서 거둬들이고, 부모 때에 심은 것을 자손 때에 거둬들이고, 금생에 심은 것을 내세에 거둬들이고. 이 추수의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 생각, 내 입술의 말, 내 행동을 조심해서 심어야 할 것입니다.<sup>7</sup>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 우리의 수족으로 행하는 하나하나가 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sup>8</sup>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둬들이고, 선으로 심으면 선을 거둬들이고, 덕으로 심으면 덕을 거둬들이고, 의로 심으면 의를 거둬들이고,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을 거둬들이고, 친절로 심으면 친절을 거둬들이고, 자비로 심으면 자비로 거둬들이고, 화평으로 심으면 화평으로 거둬들이고.<sup>9</sup>

하늘에 보화를 많이 쌓아두면 그 보화로써 축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봉사과 선행은 성령으로 심는 것이니 그것도 거둬들이는 때가 있습니다. 감사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드릴 때에 많은 감사로 거둬들이는 때가 올 것입니다.<sup>10</sup>

<sup>5</sup> 한경직. **절기설교 모음집** (서울: 사단법인 두란노 서원 발행, 2010), 246.

<sup>6</sup> 한경직. **절기설교 모음집** (서울: 사단법인 두란노 서원 발행, 2010), 251.

<sup>7</sup> 한경직. **절기설교 모음집** (서울: 사단법인 두란노 서원 발행, 2010), 251.

<sup>8</sup> 한경직. **절기설교 모음집** (서울: 사단법인 두란노 서원 발행, 2010), 252.

<sup>9</sup> 한경직. **절기설교 모음집** (서울: 사단법인 두란노 서원 발행, 2010), 253.

<sup>10</sup> 한경직. **절기설교 모음집** (서울: 사단법인 두란노 서원 발행, 2010), 256.